

산업제품으로서의 아동가구 비전 설정 및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

—아동실 및 아동가구 실태조사와 아동가구에 대한 반응조사를 중심으로—

Visions for Children's Furniture as an Industrial Design Product

—A Descriptive Research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Children' Room
and Furniture Conditions, and Perceptual Attitude toward the Furniture—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조교수 이 연 숙

연구조교 오찬옥·유성희·김영주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 Youn Sook Lee

Research Assistant; Chan Ohk Oh

Seong Hee Yoo

Young Joo Kim

<목 차>	
I. 연구의 배경	IV. 결과 및 논의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research has dual purposes. First, it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level of children's spatial environment in the residences, thereby, to make a vision for children's furniture as an industrial design product. Second, it was intended to find out the children's perceptual pattern toward the furniture, thereby to give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design development. For the second purpose, descriptors were screened with construct validity and their factor structure was identified.

The subjects were 1,197 children from 1st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rough 3rd grade of middle school, and their 1,197 parents for the first purpose, and 560 children from 6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3rd grade of middle school for the second purpose.

The first parts of findings were 1) present interests of parents of household above middle income level in Seoul in making their children's spatial environment desirable is quite high. 2) Space segregation stage in terms of physical and conceptual aspects showed very fast development, that is, there will have been very good

* 주식회사 삼익가구 연구부 수혜 연구의 보고서 일부임. 전문 보고서는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와 주식회사 「삼익가구」에 있음.

changes for children's room to be a very well furnished and independent space for them. 3) Children's opinions were quite well reflected when purchasing the present furniture, and this tendency seemed to be more likely happen in future. These findings mentioned above gave and confirmed the visions for future children's furnished environment.

The second parts of findings were such that the perceptual pattern for furniture by children showed aesthetic design appearance, functionality and durability, and the characteristic of line. This result implied especially that designers should be very careful to manipulate or use the line of the furniture products. The 22 representative descriptors selected can be used as an evaluation instrument for furniture products.

I. 연구의 배경

아동기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어느 시기보다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시기로서,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조건에 의해 발달의 양상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대표적인 환경으로서의 아동실의 발달은 세계적인 추세에서 볼 때 지난 20년간 주택의 다른 어느 방보다 크게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아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어른의 한 부속물로서만 생각하여 아동들의 환경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아동의 놀이활동 및 공간환경이 정서발달, 사회성 발달, 나아가서는 지적 발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깨닫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를 조절하기 위해 실시된 산아제한으로 인해 자녀수가 줄어들어 따라, 주택내에서 아동의 독립적인 공간사용이 가능해져 가고 있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아동공간 환경문제가 보다 활발히 제기되고 진전되리라 생각한다.

아동실 환경에서 무엇보다 주가 되는 것은 가구라 할 수 있다. 가구는 인간의 생활환경 속에 놓여져서 주택이라는 구조물과 생활 자체를 연결시켜 주는 매체로서, 생활 자체를 보조하는 기능 뿐 아니라 환경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해낸다.

한편 산업디자인의 목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

는데 첫째, 국제경쟁 시장에 나가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둘째, 대중에게 질적 수준이 높은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산업디자인 발달 양상을 살펴보면, 해방후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우선 생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편리하고 값싼 도구의 생산이었는데 중점을 두어 발달하였고, 경제상승기인 1970년대는 근대화를 지향한 경제 상승으로 미국이나 유럽등을 모방하여 국내에 없는 제품을 저렴하게 제작하는 상품화 연구가 중심이 되어 선진국을 쫓아가는 패턴으로 메리트 혹은 코스트에서 구미로의 수출증대에 목표를 두고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제품의 성능, 형태, 색채등도 경제와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는 우리 상품의 이미지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도 그 수준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게 되는 제품의 제2의 전환기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단순히 외국의 것을 모방하는 시대는 끝났고 독창성이 요구되는,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출지향적 면에만 관심을 둘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에 산업디자인의 의미를 보다 풍족하게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고 발달 되어야 할 때이다. (石川弘저, 安鍾文역, 1982) 수출증대가 목적이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산업디자인의 목적이든 결국 상호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본 연구는 후자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가구기업은 어느 기업제품과 마찬가지로 대개 산업디자인의 인식이 낮아 산업디자인의 활용이 거의 없으므로, 국민생활 문화제품인 가구의 대량생산에 관여되는 기업체제내에 올바른 산

업디자인 개념이 심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제품으로서의 가구가 실 소비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사회적, 현대 및 미래사회라는 시대성, 가구가 갖는 그리고 가구가 놓여지는 공간환경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의 조형성에 대한 비전이 있을까? 있다면 그 비전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안고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 비전은 본래 시각적 세계의 용어이지만, 의미가 발전되어서 종합적 질서의 상태를 의미하고 물체에 내재하는 비물질적인 세계로 폭넓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石川弘著 安鍾文역, 1982) 산업디자인은 문제 착안에서부터 자료분석 평가, 생산을 거쳐 나온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는데까지를 다루는 전문분야로서 제품의 궁극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지 않으면 최고의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들 실소비자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하였는데, 연구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가구가 미래를 지향한 현대산업 사회에서 산업체의 관심을 받아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주택내 아동실 및 아동가구의 실태와 소비자 의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아동실내에 놓여지는 아동가구가 어떻게 아동 자신들에 의해 지각되고 있는지 즉, 가구는 공학적 순수성에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성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구가 아동들에게 어떻게 평가 혹은 느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아동가구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두 연구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이 설정되었다.

1) 주택내 아동실 및 아동가구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실 환경의 발달 수준을 규명한다.

2) 아동가구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 양상을 알아 보기 위해 대표적인 아동가구 표현어휘를 추출하여 아동가구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아동가구 표현어휘의 요인구조를 규명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인 아동실 및 아동가구의 실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본 연구의 내용을 전개하기에 이론적으로 미흡하므로 생략하고, 두번째 목적인 아동가구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의미분별척도법을 사용하여 실내공간에 놓여지는 제품의 디자인 평가도구 개발에 관해 연구한 것으로는 의자를 대상으로 한 Alexander와 Tzeng(1978)의 연구와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한 박영순(1985)의 연구가 있다.

Alexander와 Tzeng(1978)은 의자의 디자인 평가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주택의 인접환경내에 있는 가구를 조사자극물로 선택하여 카타로그, 정기간행물, 박물관 등을 통해 540개의 의자 형태를 수집, 이물 기능, 스타일, 그리고 물리적 특성(재료, 조정성, Upholstery 정도)에 따라 분류한 후, 이를 대표하는 60개의 의자를 선정하여 슬라이드를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그들은 Illinois 대학의 가정대학과 미술대학 학생 및 직원 등 70명을 디자인과 미적 경험정도에 따라 3집단으로 분류하여, 준비된 슬라이드를 30초씩 보여주고 이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적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수집된 158개의 수식어 중 세 집단 모두에게서 빈도가 높게 나타난 대표적인 수식어 65개를 선정한 후, 40명의 소비자에게 각 수식어의 반대말을 적게 하여 일치정도가 70% 이상되는 것을 선택한 결과 모두 30쌍의 어휘가 추출되었고, 여기에 Osgood이 개발한 척도중 9개의 어휘와 친밀감을 나타내는 1개의 어휘를 추가하여 모두 40쌍의 어휘를 의자 디자인 평가도구로 개발하였다.

박영순(1985)은 의미분별척도법을 이용하여 제품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제 1 단계에서는 1차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디자인 묘사어휘 220개를 가전제품회사에 보내온 '소비자 품질제안카드'로부터 수집하였고, 2차로 대학생, 주부, 전문디자이너 70명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냉장고, 의자등의 슬라이드

이드를 보여주고 각각의 디자인에 대한 묘사어휘를 적게 한 결과, 114개의 어휘가 수집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어휘를 사용빈도와 의미의 함축성 정도에 따라 46쌍으로 축소시킨 다음,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650명을 대상으로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이 46쌍의 어휘에 대해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디자인을 평가하게 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31쌍의 어휘가 기초도구로 개발되었다. 제 2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개발된 31쌍의 어휘에 대해 서울시의 중·상계층 기혼남녀 715명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칼라텔레비전과 냉장고의 디자인을 평가하게 한 결과, 26쌍의 어휘가 최종적인 제품디자인 평가도구로 개발되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26쌍의 어휘들의 요인구조는 텔레비전의 경우는 기능성과 심미성, 상징성, 환경과의 조화순으로, 냉장고의 경우는 상징성, 심미성, 기능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진행

본 연구는 1985년 3월에 착수하여 1985년 11월에 완성하였다.

2.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1) 도구작성

(1)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① 부모용 설문지는 조사대상가정의 일반사항, 아동실 및 아동가구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와 가구 구입에 관련된 사항, 아동실 및 아동가구에 대한 실태, 그리고 아동가구에 대한 부모의 요구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② 아동용 설문지는 아동실에 대한 아동의 평가, 아동실에 대한 아동의 요구사항, 그리고 아동가구에 대한 아동의 요구사항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아동의 반응조사를 위한 설문지

① 1차 예비조사용은 설문조사도구와 슬라이드를 이용한 실험조사도구였다.

(i) 설문조사의 도구작성은 선행연구(Alexander & Tzeng, 1978; Lee, 1983; 박영순, 1985)를 바탕으로 38쌍의 어휘를 선정하여 5점척도법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ii) 슬라이드를 이용한 실험조사도구는 아동용 책상과 의자 슬라이드 각각 6장씩이었다. 단, 책상 슬라이드는 선의 형태, 서랍의 위치, 책꽂이의 유무 및 개폐성, 조립가능성등이 다양하도록 선정하였고, 의자 슬라이드는 팔걸이의 유무, 선의 형태, 등받이의 재료 및 개폐성, 조립가능성, 이동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② 2차 예비조사의 설문지는 1차 예비조사 결과 추출된 72쌍의 어휘 각각이 아동가구에 대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말로서 적합한지를 3단계로 응답하게 하였다. 단, 각 어휘쌍 뒤에는 반대말이 잘못 짝지워졌다고 생각할 경우 맞는다고 생각되는 반대말을 적어 넣을 공간을 두어 구성하였다.

③ 본조사용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38쌍의 어휘에 대해 5점척도법을 이용하여 아동 자신의 다음에 드는 아동가구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예비조사 및 사전조사

(1) 아동실 및 아동가구에 대한 실태

1985년 5월에 J국민학교 2학년(57명), 6학년(57명) 그리고 Y중학교 3학년(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구성상의 문제점, 응답자의 이해경도와 태도등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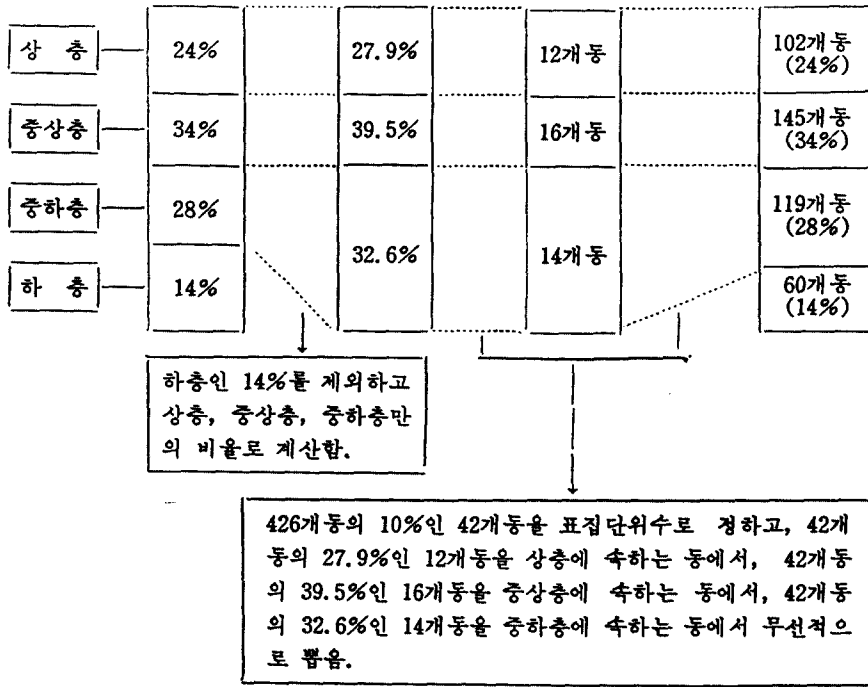
내용타당도 검증과 1차 분석방법 계획을 위해 1985년 6월에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강사와 연구교수, 그리고 E여대 부속국민학교 재학생등 35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2) 아동가구에 대한 아동의 반응조사

아동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어휘를 추출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1차 예비조사는 G국민학교 6학년(남학생 29명, 여학생 27명)과 Y중학교 3학년(남학생 32명, 여학생 32명)을 대상으로 1985년 5월에 실시하였다. 슬라이드를 이용한 실험조사는 G국민학교 4학년(56명), Y중학교 1학년(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적합도조사인 2차 예비조사는 Y중학교 3학년(69명)을 대상으로 1985년 6월에 실시하였다.

〈그림 III-1〉 표집단위 선정과정



3) 본조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 상층과 중층으로 한정하여 계층별로 유층무선표집을 하였는데, 성별과 연령별로 고루 표집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표집의 첫 단계는 서울특별시 사회계층구조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인데, 김영모*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층 24%, 중상층 34%, 중하층 28%, 하층 14%의 비율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하층인 14%를 제외하고 중층이상만으로 비율을 계산하면, 상층이 27.9%, 중상층이 39.5%, 그리고 중하층이 32.6%가 된다.

다음 단계는 이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표집단위를 선정하는 것이다. 계층 구분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을 재산으로 보아, 우선 서울특별시 총 426개 동을 재산세액의 동별 평균값에 근거하여 각 계층별로 구분하였다. 다음에는 426개 동의 10%에 해당하는 42개 동을 표집단위 수로 하여 상층에 속하는 동중 27.9%에 해당하는 12개 동을, 중

상층에 속하는 동중 39.5%에 해당하는 16개 동을, 그리고 중하층에 속하는 동중 32.6%에 해당하는 14개 동을 각각 무선적으로 뽑았다. 〈그림 III-1 참고〉.

1차로 선정된 42개 동 중에서 설문지조사에 거부반응을 보이리라 예측되는 지역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주택유형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고루 표집되도록 하되 상층, 중상층, 중하층에 속하는 동이 고루 표집되도록 하여 16개 동을 선정하였다.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주소를 근거로 하여 선정된 동에 위치한 학교의 목록을 작성한 후, 각 학교에 전화 방문으로써 대다수의 재학생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협조의뢰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학교 중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8개교를 선정하였다.

실태조사용 설문지는 최종 선정된 각 학교에서 한 학년당 한 학급씩 임의로 추출하여 아동용 설문지와 부모용 설문지 각 1부씩을 배부하였다. 그러나 반응조사용 설문지는 의미분별척도법(Seman-

* 김영모, 한국사회계층연구, 서울: 일조각, 1982, 340면.

tic Differential Method)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민학교 6학년과 중학교 1,2,3학년 학생으로 국한하였다.

실태조사 설문지는 회수된 1,824부 중에서 1,489부를 코딩하였으나, 수입**을 제한하여 1,19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편, 반응조사 설문지는 회수된 982부 중에서 779부를 코딩하여 560부를 분석하였다.

4) 자료처리 및 결과분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 F-test, t-test, χ^2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등을 사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χ^2 -test 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대빈도와 관찰빈도를 비교하고, F-test 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VI.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아동실 및 아동가구 실태조사와 아동가구에 대한 반응조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서술한다.

1. 아동실 및 아동가구 실태조사

실태조사 조사대상가정은 핵가족인 경우가 많았으며, 주부의 연령은 30대와 40대가 많았고, 가정생활주기는 확대중기와 확대초기단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부모의 학력이 있어 아버지는 대졸 이상이 많았으나 어머니는 고졸과 대졸 이상이 비슷한 비율로 많았다. 월평균수입은 40만원 이상 100만원이하인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자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원보, 1985.9, 96면의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평균 소득이 41만원으로 나와 있으므로, 중류층이상의 소득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기 위해 40만원 이하는 분석할때 제외하였다.

주택유형에 있어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보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주택규모는 20명 이상 40명미만이, 침실 수는 3개~4개인 경우가 많았다.

1) 아동실의 실태와 요구사항

아동실의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실 소유현황에 있어 두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48.7%였고, 혼자 사용하는 경우는 37.6%였다.

아동실 사용인원수는 아동의 연령, 성별, 주택소유형태, 그리고 침실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연령에 있어서 국민학교 저학년인 경우 두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학생인 경우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인 경우에는 두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여학생인 경우에는 혼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아동실의 규모는 2명 이상 4명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2.1%였다.

주택규모에 따라 아동실의 규모에 차이가 있었는데, 주택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동실의 규모도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각 주택규모별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20명 미만의 주택에서는 2~3명인 아동실이, 20명~60명인 주택에서는 3~4명의 아동실이, 그리고 60명 이상의 주택에서는 4~5명의 아동실이 많았다. 한편, 전체의 전반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해보면, 30명미만인 경우에는 2~3명인 아동실이, 30명~40명인 주택에서는 3~4명인 아동실이, 40~50명인 주택에서는 5~6명인 아동실이 많았다.

● 방의 규모에 대한 평가는, 혼자 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3명인 경우에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두명이 방을 쓰는 경우에는 3~4명인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리고 4~6명인 경우에는 '조금 넓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 아동실의 바닥재는 52.9%가 종이장판이었는데, 주택유형에 따라 바닥재료에 차이가 있었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나 모두 전반적으로 볼 때 종이장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전반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해보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리노룸이나 비닐장판인 경우가 많았으며, 아파트나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종이장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동실의 벽재료는 95.8%가 벽지로서, 주조색은 흰색(21.1%), 분홍색(20.2%), 회색(13.6%), 그리고 은색(12.4%)인 경우가 많았다.

벽지의 주조색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각 연령층별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국민학교 저학년인 경우 분홍색, 흰색, 회색, 은색의 순이었으며, 중학생은 흰색, 분홍색, 회색, 은색의 순이었다. 전체의 전반적인 경향과 비교해보면 국민학교 저학년인 경우 은색과 노랑색, 고학년인 경우 분홍색과 연두색, 그리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흰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아동이 사용하고 있는 방에 그 방을 사용하는 아동의 가구와 생활용품만이 있는 경우는 62.4%였다. 주택의 크기에 따른 차이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 방을 사용하는 아동의 가구만이 있는 편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가구 전체의 전반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해보면 30평미만의 주택인 경우에는 아동의 가구외에 다른 가정용품이나 타인의 소유물도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30평 이상의 주택인 경우에는 그 방을 사용하는 아동의 가구만 있는 편인 경우가 많았다.

현재 아동실에 있는 생활용품을 조사한 결과 시계, 라디오, 스탠드, 거울, 칩구류등의 소유율이 높았으며, 성별에 따라 생활용품의 소유실태에 차이가 있었다. 즉, 각 생활용품별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없이 거울은 소유율이 높았으며, 운동기구, 피아노, 텔레비전은 소유율이 낮았다.

한편, 조사대상가구 전체의 전반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하면, 남학생인 경우 운동기구, 텔레비전 등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여학생인 경우 거울과 피아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 조사대상 아동은 자신이 쓰는 방에 대해 86.8%가 만족정도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프라이버시측면에서의 만족정도를 조사한 결과 5가지 문항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사용인원과 안방과의 위치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혼자 사용하는 경우와 안방과 멀

어져 위치한 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프라이버시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높았다.

● 아동실은 아동의 기호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의사대로 꾸민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의 색과 디자인을 아동의 기호에 맞게 선택한 경우가 16.2%로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아동실의 실내장식은 아동의 연령, 성별, 주부의 학력, 월평균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부모의 의사대로' 아동실을 꾸민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나, 국민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아동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벽걸이를 배치'한 경우가 많았고, 국민학교 고학년인 경우에는 '벽지를 아동의 기호에 맞게', 그리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아동이 좋아하는 소품을 배치하는 한편 가구의 색과 디자인을 아동의 기호에 맞게,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성별에 따른 경향을 조사대상전체의 전반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해보면 모두 남학생인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대로' 꾸민 경우가 많았고, 여학생인 경우에는 '아동이 좋아하는 소품을 배치'한 경우가 많았다.

주부의 학력별로 보면 중졸과 고졸인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대로', 그리고 대졸이상인 경우에는 '자녀가 좋아하는 소품을 배치'한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전반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하면 주부의 학력이 중졸인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대로'인 경우가 많았으며, 고졸이상은 자녀의 기호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대로'가, 그리고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기호를 고려하여' 아동실을 꾸민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 전체의 분포경향과 비교하면 8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부모의 의사대로'가 많았고, 8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기호'를 고려한 경우가 많았다.

아동실에 대한 요구사항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아동의 62.6%가 혼자 사용하기를 원하였는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두 국민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다가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면 점차 혼자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되면서 중학인 경우에는 혼자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볼 때는 혼자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가구의 전체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해보면 남학생인 경우 들이 사용하는 것을, 여학생인 경우 혼자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아동이 희망하는 벽지의 주조색은 분홍색(18.5%), 흰색(18.1%), 노란색(14.3%), 그리고 하늘색(14.1%)의 순이었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희망하는 벽지 주조색에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전체의 전반적인 분포경향에 비교하면, 국민학교 1,2,3학년인 경우에는 노란색을, 4학년은 흰색을, 5학년은 분홍색을, 6학년은 파란색과 하늘색을, 그리고 중학생은 흰색과 하늘색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 아동이 희망하는 방의 분위기는 '조용, 차분, 안락한 분위기'인 경우가 57.4%였고, '명랑, 쾌활, 활동적인 분위기'를 원하는 경우가 42.6%였다.

아동의 연령에 따라 희망하는 방의 분위기에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조용, 차분, 안락한 분위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나, 조사대상 전체의 분포경향과 비교하면 국민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명랑, 쾌활, 활동적인 분위기'를 희망하는 반면에, 중학생인 경우에는 '조용, 차분, 안락한 분위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실의 실태에 관련된 기타사항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꾸미고 싶은 공간으로는 아동실인 경우가 29.9%로 가장 많았다.

주택유형에 따라 개선희망공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각 주택유형별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모두 아동실에 투자하고 싶다는 경우가 많았으나, 조사대상 전체의 전반적인 분포경향과 비교해보면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마당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아동실과 거실이 많았다.

● 아동실환경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생각해보거나 실제로 가구를 둘러보거나, 혹은 관련기사나 그림을 주의깊게 보는' 등의 소극적인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에 실제로 응용해보는'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아직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 가정생활주기, 주부의 학력, 월평균수입,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에 따라 아동실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차이가 있었다. 즉, 확대초기의 단계인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사용하는 방을 자녀가 좋아하고 자녀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도록 꾸며주려고 많이 생각하는' 한편,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았던 것을 응용하여 꾸며주려고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수입에 있어서는 60만원 이하인 가정에서는 '신문이나 잡지에 아동실 및 아동가구에 대한 기사나 그림이 있으면 덜 주의깊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만원 이하인 가정에서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보았던 것을 덜 응용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인 경우에 '자녀가 좋아하고 자녀의 발달에도 도움이 되도록 아동실을 꾸미려고 많이 생각하는 편'으로 나타났고, 자택인 경우 '신문이나 잡지에 보았던 것을 응용하여 아동실을 더 꾸미는 편'으로 나타났다.

2) 아동가구의 실태와 요구사항

아동가구의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동가구의 소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의 97.1%가 책상을, 95.9%가 의자틀, 94.4%가 책꽂이를, 80.5%가 옷장, 78.4%가 책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침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32.9%에 달하였다.

● 아동가구의 구입시기는 대부분 '취학전'인데, 침대는 '중 3' 때 구입한 경우도 꽤 있었다 아동가구의 구입시기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녀 모두 '취학전'인 경우가 많았으나 조사대상자의 전체적인 경향과 비교해보면, 남성은 '취학전'에 구입한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은 '국민학교 5,6학년' 때에 구입한 경우가 많았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동가구의 색상을 조사한 결과, 고통색과 황토색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옷장인 경우 흰색도 꽤 있었다.

아동가구의 색상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은 황토색인 경우가, 중학생은 고통색인 가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많았다.

• 조사대상아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재료를 조사한 결과, 가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목재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동가구에 대한 요구사항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앞으로 아동가구를 구입할 때 희망하는 색과 재료를 조사한 결과, 재료에서는 목재가 단연코 우세하였으며, 색에서는 '나무색'을 원하는 경우가 가구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많았으나, 옷장인 경우에는 '나무색이외의 색'이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36.8%에 달하였다.

• 가까운 시일내에 아동가구를 구입한다고 가정 한 경우 예상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아동용 책상, 의자, 책꽂이를 함께 구입하는 경우에 5만원 이상 20만원미만을 집중되어 있었으나, 옷장과 침대인 경우에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분포가 다양하였다.

예상비용은 월평균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수입의 증가에 따라 예상가구구입비도 증가했으나, 책상, 의자, 책꽂이의 경우에는 25만원선까지만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옷장과 침대인 경우 계속해서 가구구입비가 증가하였다.

가구구입 예상비용은 구입희망상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책상, 의자, 책꽂이인 경우 10만원이상, 15만원미만을 예상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많았고, 옷장과 침대인 경우에는 15만원이상 30만원미만을 예상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많았으나, S제품의 책상, 의자, 책꽂이를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상비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아동용 책상과 의자 구입시 예상사용기간은 4년~6년인 경우가 47%였고, 6년이상인 경우가 31.7%로 비교적 기간이 길었다.

구입희망상표에 따라 예상사용기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B제품과 S제품은 5~6년이 전반적으로 많았으나, 전체조사대상의 분포경향과 비교하면 B제품은 3~4년, S제품은 4~5년인 경우가 많았다.

• 아동가구 교체시기를 조사한 결과,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치수가 맞지 않게 되었거나 가구의 용량이 작아졌을 때'와 같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필요성을 지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동가구 교체시기는 원평균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6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는 '납았거나 파손되었을 때'라는 피치못할 이유를 들었으나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치수나 용량'같은 좀 더 차원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이유를 들었다.

• 부모와 아동에게 각 가구의 필요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습이나 수납에 대한 기능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더욱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소파에 대해서는 아동이 더욱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아동들이 아동가구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가구에 관련된 기타사항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동가구를 구매할 때 부모들이 중요시하였던 사항은 '기능성'측면과 '내구성'측면이었다.

한편, 옷장, 책장, 책꽂이, 침대등에 대해서는 '방의 분위기와의 조화'나 '색이나 디자인'등을 많이 고려했었다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다.

• 앞으로 아동가구를 구입할 때 부모들이 고려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내용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기능적인 것'이었고, 다음은 '재료와 구조가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것', '앉거나 사용하기에 편안한 것'의 순이었으며, '사용하기에 안전한 것'과 '가구의 치수가 아동의 연령에 알맞는 것'도 비교적 많았다. 그런데 이상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요인분석 결과 아동의 활동 및 행위를 무리없이 보조해주는 '기능성'이라는 요인으로 묶인 것들이다(표 IV-1 참고).

아동가구에 대한 의견은 주부의 학력에 따라 차

〈표 IV-1〉 아동가구평가측면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문 항	부하치*	문 항	부하치	문 항	부하치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기능적이어야 한다.	.47			가격이 적당해야한다.	.54
		독특하고 개성적인 제품이어야 한다.	.74	표면이 청소편리 또는 세탁하기 용이해야 한다.	.59
		현대적인 감각을 지녀야 한다.	.91		
		방의 분위기와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	.41		
없거나 사용하기에 편 안해야 한다.	.67				
가구의 치수가 아동의 연령에 알맞아야 한다.	.41				
사용하기에 안전해야 한다.	.58				

※ eigen value : 요인 1=3.70

요인 2=1.43

요인 3= .56

* 여기에 제시된 인자 부하치(factor loadings)는 아동가구에 관한 의견에 대한 15문항을 모두 넣어서 요인분석 했을 때 나타났던 인자부하치 중 .40이상 으로 나타난 값임.

이가 있었는데, 학력이 높은 경우에는 '경제성'보다는 '기능성'과 더불어 '미'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사용중인 아동가구를 구매하게 된 주된 동기를 가구별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많은 경우는 '가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낡은 경우'였는데 '색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들어서',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 싶어서'라는 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응답한 가구는 옷장, 침대, 책장, 책꽂이였다.

● 현재 아동이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구입할 때 상표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은 '대리점, 전시장, 백화점'인 경우와 '신문이나 잡지'인 경우가 많았다.

아동가구제품에 대한 정보출처는 가정생활주기, 주부의 학력,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형성기나 확대초기인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할 수 있

는데, 이 경우에는 대리점, 전시장, 백화점등을 찾아 다닌 경우를 말한다.

● 아동가구 구입시 선택결정에 참여한 사람을 조사한 결과, 주부인 경우가 7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편(51.7%), 가구를 사용할 자녀(48.2%)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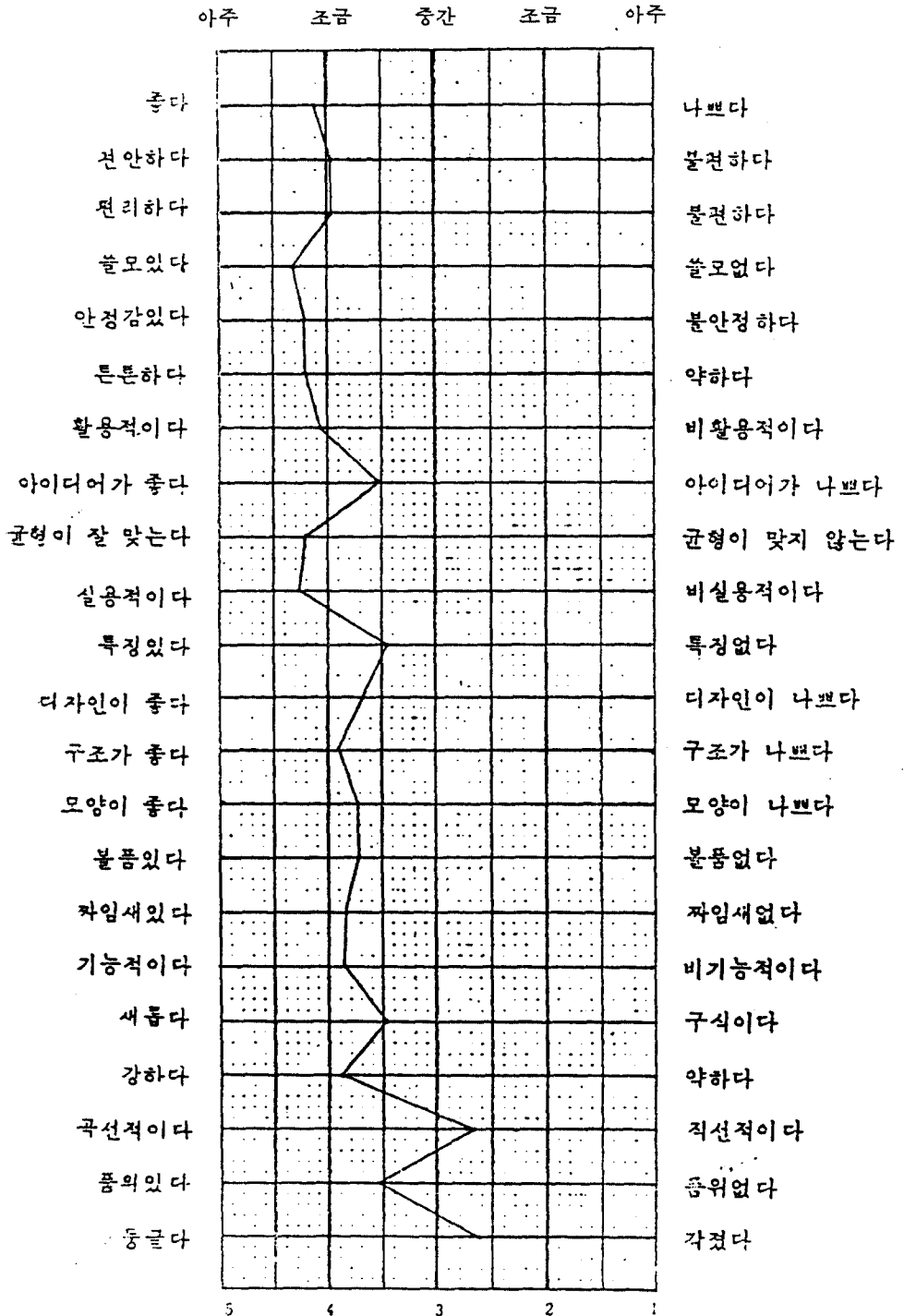
구입결정자는 주부의 연령과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주부가 아동가구 구입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전체의 분포경향과 비교하면 주부가 30대거나 만자녀가 국민학생인 가정에서는 아동가구 선택 결정시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남편이었고, 그외의 경우에는 가구를 사용할 자녀가 많았다.

2. 아동가구에 대한 반응조사

1) 아동가구 평가도구의 개발

예비조사를 통해 개발된 38쌍의 아동가구 표현

〈그림 IV-1〉 최종적으로 개발된 아동가구 평가도구(22쌍)와 아동들이 바라는 아동가구의 윤곽



〈표 N-2〉 개발된 아동가구 표현어휘의 요인분석

요 인	아 동 가 구 표 현 어 휘	요인 부하치	Eigenvalue
요 인 1 (외관 디자인 의 아름다움)	아이디어가 좋다—아이디어가 나쁘다	.61	10.29
	특징있다—특징없다	.64	
	디자인이 좋다—디자인이 나쁘다	.80	
	구조가 좋다—구조가 나쁘다	.63	
	모양이 좋다—모양이 나쁘다.	.73	
	불품있다—불품없다	.71	
	짜임새 있다—짜임새 없다	.61	
	기능적이다—비기능적이다	.52	
	새롭다—구식이다	.64	
	품위있다—품위없다	.63	
요 인 2 (기능성과 견고성)	좋다—나쁘다	.52	1.52
	편안하다—불편하다	.55	
	편리하다—불편하다	.64	
	솔모있다—솔모없다.	.63	
	안정감있다—불안정하다	.73	
	튼튼하다—약하다	.76	
	활용적이다—비활용적이다	.62	
	균형이 잘 맞는다—균형이 맞지 않는다	.62	
	실용적이다—비실용적이다	.65	
	기능적이다—비기능적이다*	.52	
강하다—약하다.	.58		
요 인 3 (선의 특징)	곡선적이다—직선적이다	.75	.89
	둥글다—각졌다	.77	

* 두개의 요인에 중복추출된 어휘임.

어휘를 요인분석한 결과, 38쌍의 어휘는 모두 8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같은 요인분석 결과에서 전체 공통변량의 45.1%를 차지하는, 즉 Eigen값이 .93이상인 4개의 요인만을 뽑은 후 이중 요인부하치가 .50이상인 어휘들을 추출한 결과 24쌍의 어휘가 대표적인 아동가구 평가어휘로 추출되었다.

대표적인 아동가구 평가어휘로 추출된 24쌍의 어휘를 재차 요인분석한 결과, 2쌍이 제외되고(그림 IV-1)과 같이 최종적으로 22쌍의 어휘가 아동가구 평가도구로 개발되었다.

이와같은 22쌍의 대표적인 어휘들로 구성된 아동가구 평가도구가 다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해 보았다. Alexander와 Tzeng(1978)이 의자의 디

자인 평가도구로 개발한 40쌍의 어휘중에는 8쌍의 어휘가 중복되어 있었고, 26쌍으로 구성된 박영순(1985)의 제품 디자인 평가도구와는 7쌍이 중복되어 있었다. 또한 세연구에서 모두 중복되어 나타난 어휘는 3쌍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만 나타난 어휘는 10쌍이었다.

2) 개발된 아동가구 표현어휘의 요인구조 분석

대표적인 아동가구 표현어휘로 추출된 24쌍의 어휘들이 어떠한 차원의 의미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 24쌍의 어휘만을 가지고 재차 요인분석한 결과, 〈표 IV-2〉와 같이 24쌍의 어휘는 모두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요인부하치가 .50 이상인 어휘들만을 추출한 결과 '폭신하다—딱딱하다', '부드럽다—거칠다'의 2쌍이 제외되어 모두 22쌍의 어휘가 최종

적인 아동가구 표현어휘로 추출되었다.

이들 22쌍의 아동가구 표현어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첫번째 요인에는 대체로 '외관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는 어휘 10쌍이 포함되었고, 두번째 요인에는 대체로 '기능성과 견고성'을 나타내주는 어휘 11쌍이 포함되었으며, 세번째 요인에는 '선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어휘 2쌍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동들이 가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관점은 디자인의 외관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측면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능성과 견고성 측면, 마지막으로 선의 특징 측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세번째 요인으로 선의 특징 측면이 따로 나타났는데 이를 첫번째 요인과 비교하여 보면 첫번째 요인인 외관 디자인의 아름다움 범주에 속한 어휘들은 가구가 갖는 디자인 요소인 색, 형태, 선, 공간, 질감, ... 등이 합해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을 표현해 주는 추상적인 것들임에 비해 이는 선이라는 디자인 요소의 특징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속한 두 어휘의 요인부하치 앞의 부호가 '+'로서 긍정적인 표현의 방향, 즉 곡선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것이다. 이는 아동들 자신이 직선적인 가구보다는 곡선적인 요소가 있는 가구를, 모서리가 작진 가구보다는 둥근가구를 더욱 마음에 들어 한다는 것으로, 직선적이거나 작진 가구는 그 모서리가 실제적인 측면에서 날카로와 아동들이 다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갖는 날카로운 신경을 자극하기때문에 특히 가구의 모서리부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은 어른이 아동가구를 보는 관점, 즉 직선적이거나 작진 가구는 외형적인 위험성때문에 활동적인 아동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과 일치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가구는 심신의 휴식처가 되어야 하는 한편 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주택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보다 인간적이고 부드럽다고 할 수 있도록 곡선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아동의 신경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자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책상과 의자같은 학습용 가구는 자세를 경직

시켜야 하므로 직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아동들 자신이 원하는 학습용 가구는 경직된 느낌을 자아내는 가구가 아닌 부드러운 느낌을 주도록 곡선적이거나 둥근 요소가 눈에 들어오는 가구이므로 아동용 책상과 의자를 단지 긴장을 시키는 학습용 가구로서만이 아니라 안락함과 심리적인 편안함을 자아내야 하는 주거공간 내에 놓여지는 가구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가구의 선뿐만이 아니라 의자의 앉는 부분같은 곳을 천이나 가죽등으로 처리하여 신체적인 편안함은 물론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용가구는 너무 요란하게 곡선처리되었거나 지나치게 경직된 가구는 피하고 디자인상 곡선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추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Faulkner(1975)는 일반적인 디자인 평가기준을 기능성, 경제성, 심미성, 개성으로 요약하고 있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가구가 보조해 주어야 하는 인간의 행위적 측면에서 논해지는 것으로, 곧 가구가 어떤 행위를 보조해 주기 위해 어떻게 만들어졌나하는 목적성인 것이다. 경제성이란 가구에서 느껴지는 화폐가치적 및 유지관리적 측면 즉 구매시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 시간, 노력 등이 얼마나 효율적인가하는 것이다. 심미성이란 주로 의관의 디자인에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고, 개성이란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아동가구 평가내용 결과물 이 네 측면과 비교해 보면, 아동들 자신이 그들의 마음에 드는 가구를 평가하는 측면은 무엇보다 심미성과 개성이 어우러진 측면 즉 '디자인이 좋다—디자인이 나쁘다', '모양이 좋다—모양이 나쁘다', '불품있다—불품없다', '특징있다—특징없다', '새롭다—구식이다', '구조가 좋다—구조가 나쁘다', '품위있다—품위없다', '아이디어가 좋다—아이디어가 나쁘다', '짜임새있다—짜임새 없다', '기능적이다—비기능적이다'등으로 표현되는 영역이었다. 그 다음으로 보는 측면은 내구성을 포함한 기능성 측면 즉 '기능적이다—비기능적이다', '편리하다—불편하다', '좋다—나쁘다', '편안하다—불편하다', '실용적이다—비실용적이다', '균형이 잘 맞는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 '활용적이다—비활용적이다' '쓸모있다—쓸모없다', '강하다—약하다', '튼튼하다—약하다', '안정감이 있다—불안정하다' 등으로 표현되는 영역이었다. 특히 경제/유지관리적 측면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가구를 표현하는 어휘를 수집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이 측면을 표현해주는 어휘의 수가 적었고, 또 본조사에 사용된 어휘 38쌍중에도 직접적인 표현어휘들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측면을 표현해주는 어휘인 '값비싸 보인다—값싸 보인다', '호화스럽다—초라하다' 등이 있었으나 22쌍의 대표적인 어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측면을 표현해주는 어휘가 최종단계에서만 아니라 어휘를 수집하는 예비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가구의 경제적 측면 즉 구매할 때의 가격에 관한 문제나 유지관리할 때의 용이성등은 어른들 즉 부모의 평가관점이지 아동들의 평가관점이 아닐 수 있고, 또 대상 아동들이 생각하는 책상과 의자는 대개 유지관리면에서 문제가 적기때문에 실제로 유지관리적 측면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세번째로 아동들 자신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가구를 평가하는 측면은 선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측면 즉 '곡선적이다—직선적이다', '둥글다—각졌다' 등으로 표현되는 영역이었다. 이러한 선의 특징 측면이 아동들의 가구 평가측면으로 새롭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하다.

또한 아동들 자신이 원하는 아동가구는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IV-1> 위에 아동들의 응답내용의 평균점을 표시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아동실 및 아동가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류이상 부모들의 아동실 환경 조성에 대한 현재의 관심은 매우 높고, 앞으로도 실제 경제적인 여건이 향상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꾸미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지적됨으로써 미래 실천가능의 여지를 역력히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아동공간의 주 구성요소인 가구제품의 미래 시장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둘째, 우리나라 아동공간의 분화과정은 대단히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앞으로 아동들의 생활 전반을 바람직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세계가 되는 독립적 공간형성기회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였다. 현재 아동이 거주하는 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도 혼자이거나 형제와 2명이 함께 쓰는 비율이 아주 높았고 이때 원하는 사용자수도 마찬가지로였다. 아동실에 놓여지는 가구의 종류도 그 방을 사용하는 자녀의 가구만 놓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동의 독립적 공간사용양상도 보였다. 또한 아동실에 놓여진 가구를 제외한 생활용품 소유수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아동실에서 개인 생활권 확보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아동들이 성인공간의 일부에서 생활해오던 것에 비하면 주목할만한 것인데, 그 이유는 생활여건상, 가족구성상의 변화로 인한 것도 있겠고, 부모와 아동들의 공간분화개념의 발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동실은 아동 자신들의 거의 모든 생활이 행해지는 장으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일반 실내장식을 위한 벽, 바닥, 천정 처리에 관한 사례는 물론 가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소비자의 요구도 가구가 가지는 속성에서 기능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외관디자인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부모들이 가구를 보는 관점은 기능성, 외관디자인의 미, 경제/유지 관리성의 순이지만 아동가구의 색과 디자인 문제가 무시 못할 정도로 부모에게 부각되었다. 흔히 소비자들에게서 언급되어져 오던 문제는 과감하게 밝은 색을, 특히 흰색을 썼을 경우 유지관리적 측면이었으나, 종합적 자료수집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도 유지관리성은 디자인문제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것이다. 한편, 아동이 가구를 보는 관점은 무엇보다 외관디자인의 미가 두드러졌다. 기능성보다 외관디자인이 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결과는 디자인이 순수한 아동들에게 얼마나 큰 시각적 효과를 거두어 내는지를 알 수 있으며 시각적인 미를 갖춘 가구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은 가구를 사용한 아동을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네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동가구 구입시 자녀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가 꽤 높았으며 앞으로 자녀들의 참여율은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관심에서도 나타났듯이 아동가구 구입시 아동들의 의견, 선호를 반영해주는 경향이 높고 또 자녀들의 가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임으로 산업체는 아동들의 필요와 선호문제를 염두에 두고 가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동이 사용하고 있는 가구의 구입시 상표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은 곳은 대리점, 전시장, 백화점인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이는 생활공간속에 직접 놓여져 기능성 뿐 아니라 만족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가구의 경우, 실제로 가능한 공간에서 놓여지는 효과를보고 싶어 하는 의도가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체는 전시장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실제 생활과 거리가 이 크지 않도록 보다 현실에 가까우면서 디자인 효과가 크도록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아동가구에 대한 반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들 자신이 보는 가구의 평가관점은 외관 디자인의 아름다움, 기능성과 견고성, 선의 특징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디자인 평가 기준인 기능성, 미, 개성측면은 언급되었으나 경제성측면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선의 특징이라는 새로운 측면이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대상자와 가구라는 특성측면이 어우러져 나타난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측면중 외관 디자인의 아름다움이 아동들이 가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측면으로 나타나 실소비자인 아동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구가 되려면 무엇보다 특히 외관 디자인에 전력을 다해야함을 암시해 준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아동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가구의 윤곽이 그려졌으므로 디자인을 하는 기업들은 각 생산품이 이 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경희, "주택환경이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생태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아동", 주택 40호 1981.

김영모, 한국사회계층연구, 서울: 일조각, 1982.

김진규, "아파트 가정과 단독주택 가정의 환경차에 따른 아동교육의 과제탐색을 위한 조사연구—서울시내 아파트 가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1982. 11.

박영순, "의미분별척도법에 의한 디자인 평가도구의 개발—생활기기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5.

안중문(역), 공업디자인프로그램, 서울: 창미, 1982.

유성희, "청소년의 주거의식에 관한 조사연구—개인공간의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이연숙, 오찬옥, "아동실 환경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권 2호, 1986. 4, 123~133면.

장순원, "아동실의 독립시기, 가구배치빈도 및 아동가구에 대한 관심도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지금수, "유아양육에 적합한 주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77.

최광석, "자녀침실의 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1984.

최효선, "각 계층별로 본 아파트 아동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78.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다세대거주 단독주택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1981.

Alexander, Harold H., Marjorie A. Alexander, and Oliver C.S. Tzeng "Designing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for a Universe of the Near Environment—Chair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6, No. 4, June 1978, pp. 293~304.

Downer, D.B., "Adolescent Use of Parental Dwelling Space," Ph.D. Dissertation, Purdue Univ., 1977.

- Faulkner, R. & S. Faulkner, *Inside Today's Home*,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1975.
- Lee, Yeun Sook and Margaret Weber,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Aesthetic Quality of Housing Environ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5, 1984, pp.255~279.
- Sharonov, Y.A., "Designing Children's Spatial Environments," *Ekistics*, 281, Mar./Apr., 1980.
- Zirm, H., "The Influence of Home Environments o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Ekistics*, 281, Mar./Apr., 1980.